



 금융위원회	<b>보 도 참 고 자 료</b>				 금융감독원
	<b>보도</b>	<b>배포시부터 보도가능</b>	<b>배포</b>	2017.9.22(금)	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형 주(02-2100-2830)	<b>담 당 자</b>	윤 덕 기 사무관 (02-2100-2835)		
	금감원 은행감독국장 민 병 진(02-3145-8020)		이 은 진 사무관 (02-2100-2836) 자영업자대출전담반장 김 충 진(02-3145-8045)		

## 제 목 : 연합뉴스 9.22일자, 「자영업자 빚 521조원…부실위험 큰 저신용자 대출 32조원」 제하의 기사 관련

### < 보도 내용 >

- 연합뉴스는 '17.9.22일 「자영업자 빚 521조원… 부실위험 큰 저신용자 대출 32조원」 제하의 기사에서,
- “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521조원으로 집계됐다. … 생계형이 38조 6천억원, 일반형이 178조원, 기업형이 164조 1천억원, 투자형이 140조 4천억원이다”
- “특히 생계형 대출의 13.5%(5조 3천억원), 일반형 대출의 10.1%(18조원), 기업형 대출의 4.0%(6조 5천억원), 투자형 대출의 1.7%(2조 4천억원) 등 32조 2천억원이 신용도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대출로 파악됐다” 라면서
- “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약 6.1%가 부실위험이 큰 저신용자를 상대로 대출된 셈이다”라고 보도

### < 보도 참고 내용 >

- 「21세기 금융비전 포럼」 강연의 자영업자 관련 통계는 참석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된 자료이며, 확정된 수치가 아닙니다.
- 특히, 강연 자료 중 저신용 자영업자 비중은 차주수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, 동 자료만으로는 자영업자 유형별 저신용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 산출이 어렵습니다.




\*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 
 prfsc@korea.kr


 넓게 들었습니다  
 바르게 알리겠습니다